

9경·9품·9미·9락·9길...무안 관광자원 45선 선정

관광공사 자료 분석·주민 설문조사...최신 관광 추세 반영 회산백련지서 연꽃축제까지 먹거리·즐거거리 상품화 박차

이제 9경(景)·9품(品)·9미(味)·9락(樂)·9로(路)로 승부한다.

무안군이 '대표 관광자원 45선'을 선정해 대표 관광자원 상품화에 나섰다.

'무안 대표 관광자원 45선'은 지난 1999년 지정된 '무안 5경 5미'를 대폭 개선한 것이다.

'무안여행 오꾸또오꾸'라는 문구를 내걸고 새로운 관광지와 최신 관광 추세를 반영했다.

무안 45선은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분석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을 들어 작성했다.

무안군 관광자원 선정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5개 부문에 각 9개 관광자원을 선정했다.

무안 대표 관광자원은 ▲차별화된 공간 9경(景)에 회산백련지, 황토갯벌랜드, 영산강 식영장·느리지, 초의선사탄생지, 해수욕장(뜸머리, 흥룡),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도리포일출·일몰, 승달산, 낙지공원 ▲정정특산물 9품(品)에는 황토고구마, 황토양파, 갯벌낙지, 감태, 곱창돌김, 황토랑살, 송어, 한우, 분청사기 ▲특별한 요리인 9미(味)는 낙지별미(탕탕·연포탕·호풍구이), 돼지찜불구이, 송어회, 한우별미(샤브샤브·생고기·구이), 무안고구마 생막걸리, 윤저리초무침, 명산장어구이, 양파별미(양파김치·장아찌·양파빵), 해파리물회 ▲즐거는 체험인 9락(樂)은 축제(무안연꽃, 무안황토갯벌, YD페스티벌, 무안갯벌낙지), 초의선사탄

생문화제, 미술관(오승우미술관·뫼타이미술관), 물맛이 치유의숲, 밀리터리테마파크, 무안전통시장(토요야시장), 무안골프(무안CC, 무안클린벨리), 무안생태갯벌과학관·해상안전체험관, 흥룡윈드서핑 ▲테마여행길인 9길(路)은 도리포해송숲길, 무안음식테마거리(빨간지거리, 남양명품거리), 가고싶은섬 탄도돌래길, 해안노을길(조금나루→봉오제), 승달산목우암길, 영산강 자전거길, 남양 수변공원길, 무안서해랑길(24코스, 32코스), 캠핑로드(회산백련지, 황토갯벌랜드, 낙지공원아일랜드)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우리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명소와 풍성한 먹거리, 즐거거리 등을 잘 담아 선정된 대표 관광자원 45선을 관광 상품화하고 각 개별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무안이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김산 무안군수가 '무안 대표 관광자원 45선' 대표 관광자원화 지정 용역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혁신 플랫폼' 영암군 에너지센터 개소

전남 군단위 1호 지역에너지센터 탄소중립 실천 사업 발굴 등 활동

주민이 중심에서 혁신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혁신 플랫폼이 영암에 생겼다.

영암군은 최근 영암읍 남문로에서 우승희 군수를 비롯해 이순형 동신대학교수, 박재만 광산군에너지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에너지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전남도 군단위 1호 지역에너지센터인 영암군에너지센터는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해 영암군과 영암주민의 사이를 연결하며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영암군이 지난해 말 제정한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라 문을 열었으며, 지역 내 에너지문제 해결, 탄소중립 실천 사업 발굴 등 '에너지 전환 혁신 플랫폼' 역할을 담당한다.

개소식에서는 '영암군에너지센터 기본 기조'가 발표됐다. 센터는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전환 선도도시, 영암'을 목표로 '주민 중심 에너지전환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위해 정책혁신, 산업혁신, 소통과 협력 등에 나서기로 했다.

2030년까지 달성할 8대 핵심사업도 제시됐다. 1가구 1태양광 '에너지자립마을', 'RE100 대불산단' 프로젝트, 에너지-ICT 융합 스마트영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스마트농촌, 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일자리, 주민발전소 이익공유 생산적 복지공동



우승희(오른쪽 세번째) 영암군수 등 관계자들이 영암군에너지센터 개소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체, 생태-에너지전환 주민 1만 명 교육, 에너지 콜센터 원스톱 서비스 등이다.

올해는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실천 전문가 양성 과정, 에너지정책 선진지 벤치마킹 및 신규사업 발굴, 지역 에너지포럼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민의 영암군 에너지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소통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센터는 내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에너지전

환 선도도시 영암'을 본격화한다.

특히 에너지 자립마을, 주민발전소, 영농형 태양광사업 등은 신안군 등의 주민이익공유제 우수 사례를 참고해 영암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에너지센터가 목표와 비전을 토대로 준비한 8대 주요 핵심사업들을 영암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추진해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의 지역 모범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환 기자 jbh@

영광읍 9개 리 지역 건물 3634개 번호판 야광판으로 교체

영광군이 영광읍 9개 리(里) 지역을 대상으로 오래된 건물 번호판을 야광 번호판으로 교체했다.

번호판 교체 작업은 지난 9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했다.

교촌리, 남천리, 녹사리, 단주리, 동동리, 무령리, 백학리, 신하리, 학정리 등 영광읍 9개 리의 번호판 3634개를 교체했다. 영광군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건물 번호판을 밤에도 잘 보이는 야광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새롭게 교체된 건물 번호판에는 쿼일(QR) 코드가 담겼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진도군 불링장 수탁기관 진도군체육회 선정

진도군은 진도군 불링장 수탁 운영기관으로 진도군체육회로 선정하고 3년간 운영협약을 맺었다.

진도군과 진도군체육회는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진도군 불링장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진도군체육회는 진도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진도군은 지역민의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불링장 건립을 추진했다.

불링장은 진도공설운동장 일원에 국비 11억원·군비 24억원 등 총 35억원을 투입해 마련했다.

943.41㎡ 규모로 건립됐으며, 10레인이 설치됐다.

진도군은 다음 달 13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민들에 무료 개방한 뒤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불링장이 들어선 진도공설운동장 일대는 축구장과 체육관, 근력 훈련장, 실내 육상준비장 등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구축해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도 손꼽히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불링장 개관을 통해 군민의 건전한 취미 생활과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며 "진도군의 다양한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홍보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

신안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 운영 압해읍 학교리에 지난달 문 열어...5개 가정 하루 3차례 이용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신안군 가족센터 안에 마련된 '공동육아나눔터' 내부. <신안군 제공>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신안군 가족센터 안에 공동육아나눔터인 '신한 꿈도담터 150호점'이 지난달 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신안군은 올해 4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돼 신한금융희망재단으로부터 공사비·기자재 8400만원을 지원받았다.

공동육아나눔터는 147㎡ 규모의 공간에 400여 점의 장난감을 갖춰 꾸려졌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오전 9시 30분~오후 5시) 지역 사랑방 역할을 하며 '돌봄 품앗이'를 제공한다.

한 번에 5개 가정이 하루 3차례에 걸쳐 나눔터를 이용할 수 있다. 회차당 이용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쉬는 시간에는 시설 청소와 소독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안군 가족센터(061-240-8718)로 문의하면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신안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기자 노트

역사가 말하고 있는 불갑산



김창원 서부취재본부 기자

최근 모 전남도의회(합평)이 불갑산을 모악산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난달 31일 합평군 일부 지역민들이 '모악산 516m 합평군 최정상' 표시석 설치를 강행하면서 영광군과 합평군이 불갑산 도립공원 명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영광군에서는 불갑산은 국토지리정보원(옛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지명이며, 불갑산 지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을 알리고 있다.

우선 불갑산이라는 역사적 원명은 백제시대 불갑사가 창건되면서 백제 침류왕 원년인 서기 384년부터이다. 불갑산이라는 명칭 백제, 고려, 조선, 근현대까지 변함없이 지역민들에게 불리고 각인된 이름인 것이다.

고려시대에도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1359년 공민왕의 명에 따라 재정 이달중이 각진국사 비명을 지어 불갑사에 세운 각진국사 자운탑비에 불갑산이라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

근대적 측량이 이루어지기 전 제작된 한반도 지도 중 가장 정확한 지도인 1861년 간행된 대동여지도 등 4개 지도에서 불갑산(518m)과 모악산(339m) 위치는 명확하게 서로 다른 곳으로 표기되어 있고, 팔도지도(1790년) 등 4개 지도에서는 모악산은 없고 불갑산만을 표기하고 있다.

또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1959년 6월에 작성된 대한민국 최초 전국

지명조사철(총 194권)은 공간정보 역사기록물로서 불갑산(경도 126-34-00)은 합평군 해보면과 영광군 불갑면 조사 내용이 동일 좌표로 일치한다.

모악산(경도 126-32-20)은 합평군 해보면 조사내용에 경위도 좌표가 명확하게 다른 위치로 표기돼 있다. 이를 토대로 1961년 4월 22일 관보에 불갑면 모악리 불갑산으로 고시되었다.

이와 함께 2003년 3월 8일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지명을 국립지리원에서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불갑산으로 고시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따라 역사적으로 과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광군과 합평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명이 불갑산이고, 2019년 1월 10일 전남도에서도 도립공원 명칭을 불갑산도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이다.

한편, 김제시에 있는 전북도 지정 모악산도립공원(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40-3)은 합평에서 주장하는 모악산 지명과 같이 명칭에 따른 소모적 논쟁이 오히려 국가적 논란만을 자초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불 때 지명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은 지역민,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으로 실물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현실에서 이러한 논쟁을 뒤로하고 지역경제에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kcw@kwangju.co.kr



지난 10월 한국수산벤처대학 교육생들이 베트남 현장 학습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한국수산벤처대학 신입생 50명 모집

완도군은 13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2024학년도 한국수산벤처대학 18기 신입생' 50명을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수산벤처대학은 어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수산업을 이끌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완도군, 전남도, 조선대학교가 공동 설립했다.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해양수산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하고 있다. 한국수산벤처대학은 이달 현재까지 총 125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은 내년 3월부터 1년간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원교육센터에서 진행한다.

수산학개론, 수산식품공학, 벤처창업·경영 컨설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했다.

교육생 모두는 국내·외 현장 체험을 가고, 수료생 중 성적 우수자를 포상한다.

특히 창업 과정 중 시제품 개발 지원을 받아 자체 상품을 제작하고, 수출 연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60세 미만 수산업 경영(종사)자·자·비 창업자라면 거주지와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교육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원교육센터(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61번길 220)나 전자 우편(wsr@chosun.ac.kr)으로 내면 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